

리버데일 한의원

한 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백 한의원

한 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 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뉴욕 라이프보험

김 여경 (해레나)
(203) 629-0266(O)
Fax (203) 629-9073

광고 모집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 정비 (자동차)

브 룡 스

2801 Webster Ave
(718) 295-3252

통증 증제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 Pl. 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대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엠펙아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원리
배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 세무보고
회사 설립, 사업면허
공증 번역, 사업체
종업원 상해보험
(718) 961-4024, 4022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게지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i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소망이발관

747 Central Park
주차장 완비
주일은 쉽니다
(914) 725-0747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 (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 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광고모집

합니다.

정일연 (스테판노) 치과

뉴욕비치치과대학교 졸업
알바니 (시립병원 앞)
(718) 426-4343 (주자문비)
배이사이드 718-352-3434

리사 휴대폰

국내 무제한, 한국 5시간
월 40\$ (세금포함)
(718) 205-1200 Kim

제 1664호

2011.5.29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요한 14, 15 - 21)

주임 신부 : 남 시몬 (해근)

부주임 신부 : 이 안드레아 (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 (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 (본미사), 12시 30분 (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 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 (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부활 제6주일

ㄹ 입당송

(이사 48,20)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5-8.14-17)

그 무렵 5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6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7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8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15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16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17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66(65),1-3,4-5,6-7,16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1.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나이다!” ●
2.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3.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네. ●

4.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ㄹ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15-18<또는 4,13-16>)

- 사랑하는 여러분, 15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16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 17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 18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ㄹ 복 음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5-21<또는 17,1-1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ㄹ 영성체송 (요한 14,15-16)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5/29 8시	이 상자	한 성천	한 회자	박 미순
11시	김 철중	김 철재	김 혜란	김 미수
6/ 5 8시	김 철	김 부균	방 경숙	이 상자
11시	최 일환	엄 정환	주 인숙	최 금연

복 사 : 김 현우 & 김 현민 안 정훈 & 윤 정훈
 봉헌자 : 윤구식&김문배 가족 다음주 : 김만석&최충규 가족
 헌금봉사 : 상지의 옥좌 Pr 다음주 : 존경하울 어머니 Pr
 운전봉사 : 지 회남 다음주 : 이 준섭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 가족일동 봉헌
 대부,대모님(생미사) : 김다니엘[철중] 가족봉헌
 황보[피터](생미사) : 황보세훈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이줄리아나[옥](연미사) : 이바오로[재웅]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다니엘, 박아네스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조상님(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봉헌
 송테레사[성래](연미사) : 송삼용 가족봉헌
 조철희(연미사) : 조로물로[강희]가족봉헌
 조부모님(연미사) : 김마태오[창규] 봉헌
 김야고보[제수](연미사) : 김다니엘[철중] 가족봉헌

성가

입당 : 사랑하울 어머니 (성가236)
 봉헌 : 주여 우리는 지금 (성가512)
 성제 : 자애로운 예수(성가 170)
 천사의 양식 (성가 187)
 파견 : 성모의 성월 (성가 244)



교회 소식

(1) 예수성심 성월

5월 성모성월이 끝나고 6월부터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2) M.E.(부부주말 피정) 소식

동북부 제63차 부부주말피정이 (Wynlham Garden Hotel)에서
 (ئم루치아노, 카타리나), (최제임스, 아다나시아), (민스테파노, 마리아)
 (김안드레아, 베로니카), 부부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은총 많이 받고
 오시도록 기도합니다. 환영식은 6월4일(토) 저녁8시에 있습니다.
 M.E 부부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청년 성령세미나 소식

영여성령세미나 이번주[6월2일(목)-5일(주일)]가 뉴튼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신청마감은 5월30일 까지 기도회장 최니콜라오(347-573-1417)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일학교 은총마당

다음주 6월5일(주일) 11시 미사후 은총마당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정 마르꼬 야유회

성정 마르꼬 야유회가 다음주 6월5일(주일) 8시미사후 (모슬로 파크)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 경로잔치 소식

다음달 마지막 주일(26일)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있으시면 회장단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교실 강좌안내

5월28일(토요일)부터 컴퓨터강좌를 본당(센타202호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가신청은 성당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아름상품권을 구입해서사용(5%는빈센트회에돌아옴) 하는 것은 우리집 식탁에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사무실이나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5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중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6월)은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866.00

사순극기함 : \$450.41

부활초 봉헌 : \$180.00(임페로니카)

교 무 금 : \$ 2,910.00 교육헌금 : \$ 4,318.65

이윤형(1-6) 함봉국(4-5) 장윤희(4-5) 서균덕(1-6)

원분실(6-7) 박선경(5-8) 강순연(5) 정강수(5)

이종진(1-6) 손 숙(5-8) 서명희(5-6) 신대철(5)

김부균(4-5) 이동수(4-5) 최숙자(3-5) 윤인자(5)

Stewardship Appeal : \$355.00 누계 : \$ 6,635.00

이윤형 서균덕 원분실 박선경 정강수

이종진 우상영

성 정 마르꼬회 신자들의 광장

우리 성 남요한 성당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각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교회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성 정 마르꼬회도 우리 교회의 한 단체로서 발족한지는 이미 21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 중 활동이 가장 부진한 것 같아 회원으로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 정 마르꼬회는 일반 직장인의 은퇴연령인 65세를 넘긴 남녀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본당에는 성 정 마르꼬회원이 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약 2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원수는 겨우 4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65세를 훨씬 넘었지만, 아직 회원이 아닌분들중에는 형편이 안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노인행세하고 싶지 않아서...노인행세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기만 바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성 정 마르꼬회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 어떤 정보도 나누고, 통하는 대화도 하면서 기쁘고 보람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바쁘게 살아오면서 등한시했던 신앙심도 키우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만, 우리 자식들, 즉 젊은 세대와 무슨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 모이면 옛 이야기에서 부터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웃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분전환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성 정 마르꼬회에 가입하셔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 정 마르꼬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노인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원들이 노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연장자, 선배 즉 시니어(senior)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시니어라고하면 노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윗사람들을 뜻하지요.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사람을 보고 시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정 마르꼬회는 그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모임이라기 보다 삶에 경험이 많은 인생에서의 선배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몸도 쇠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성 정 마르꼬회에서 무슨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니어들도 교회를 위해서 한 몫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시니어들도 함께 할수있도록 의논도 해 주시고, 일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 정 마르꼬회 회원들은 오랜 삶의 경험과 그로 인해 쌓은 지혜로서 주위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신 홍원(예레미야)